

숲정이

2010년 12월 25일 (가해)

예수성탄대축일

전주교구 주보

2010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대희년 10주년을 맞이하며”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201호 <http://jcatholic.or.kr> E-mail | catholic114@hanmail.net
주소 | 560-110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전화 | (063)230-1004 팩스 | (063)283-9365



Murillo, B.Esteban(1618~1682), Navidad(탄생)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주교구장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요한 1,1.14).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가장 가까이 따르며,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살살이 살펴보았던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과 똑같은 인간”(필립 2,7)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과연 나자렛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1고린 2,9)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만 그렇게 놀랍고 신비스런 분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 날까지 계속 신비스런 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며,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분이 짐승의 밥통 속에 담겨 계시고, 더 할 수 없이 풍요하신 분(요한 1, 16 참조)이 천대받는 인간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십니다(요한 4, 7 참조). 전능하신 분이 악당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마르 16,19)이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마르 16,20).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사람, 특히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마태 25,35-36)의 얼굴 속에 지금도 그 모습이 뚜렷이 보이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요한 14,20) 계신가 하면, 아직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묵시 3,20) 계십니다.

그분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루가 21,5) 건물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두고”(요한 2, 21)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도 하느님을 자기 안에 모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께서는 말씀이신 당신이 피와 살을 취하여 사람이 되게 하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잘 간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리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어머니 못지않게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브로시오 성인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잉태하고 낳는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 출산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주님의 말씀 28항 참조).

루가복음 11장 27-28절에 소개된 한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옮기자면, “당신을 잉태한 자궁과 먹여 기른 젖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도 “실천한다”는 뜻과 “남이 손상시키거나 흠쳐가지 못하도록 잘 간직한다”는 뜻이 있는데, 성서 원문은 여기서 이 두 번째 의미를 띠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답을 풀어 보면, 여인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손상되지 않도록 자궁 속에 잘 간직하면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아기로 태어나듯이,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여 손상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보호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천사를 통해 들려온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인 나를 몸에 잉태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히 부러워할 것은 없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잘 간직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을 잉태한 나의 어머니처럼, 하느님 말씀에 자신의 피와 살을 입혀 드리는 셈이 되고, 따라서 말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띤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하느님 말씀”(2008년 10월 5일-26일)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여 내놓은 교황 권고서 “주님의 말씀” 79항에서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주교는 자기 사제들과 함께, 또 나아가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 자체와도 같이,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건네주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머물러 그 보호를 받고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그 뒤를 이어 신앙인이 성전이 되는 것과 같이, 마리아께서 말씀의 어머니가 되신 모범을 본받아 신앙인은 누구나 말씀을 받아들여 마리아와 같은 말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일만이 아니라, 마리아께서 말씀의 어머니로 탄생하시는 때이며, 그분의 뒤를 이어 우리 신앙인 하나하나가 또 말씀의 어머니로 탄생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코 복음 3장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복음선포 활동 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알려드리자, 예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르 3,31-35 참조).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 먼저 말씀을 자신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자라게 하여, 그 말씀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빛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저녁 미사

제 1독서 이사 62,1-5

화답송 시편 89(88),4-5,16-17, 27과 29(◎ 2가)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독서 사도 13,16-17, 22-2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내일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 구세주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1-25<또는 1,18-25>

영성체송 이사 40,5 참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제 1독서 이사 9,1-6

화답송 시편 96(95),1-2가, 2나-3,11-12,13(◎ 루카 2,11)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제 2독서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14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제 1독서 이사 52,7-10

화답송 시편 98(97),1,2-3나, 3다-4,5-6(◎ 3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독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를 비추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큰 빛이 땅 위에 내렸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1-18<또는 1,1-5,9-14>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